



2024년 / 11월 3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1월 15일(금) 10시 : <전북 의병과 미래공동체> 인문 포럼

■ 연구원 소식

- 2024년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송년회 안내

202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열리는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송년회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나눴던 귀한 기운을 다시금 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일시: 2024. 12. 14(토) 18:00~20:00
- 장소: 노랑토랑 연회장(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62 / 063-229-7948)
- 주요일정
 - 개회식
 - 우수 회원 시상
 - 축하공연
 - 도서 나눔을 위한 기부 도서 모집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사무국으로 문의 바라며 도서나눔에 참여하실 회원께서는 출간 5년 이내의 책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근대 조폭(組暴)의 원조 가다 - 1972. 11. 21.

그는 깡패였다. 깡패답게 단순했고 잔인했다. 그가 전평 파업 당시 파업 노동자들이 있던 용산역을 습격, "'죽창으로 전평(좌익의 전국노동자평의회) 대원을 죽이고 묻은" 것은 사실이었고, 46년 10월 대구봉기 때는 청년단을 이끌고 대구로 가서 악명을 떨쳤다. 그는 어려서부터 주먹패로 절친한 이까지 좌익이라는 이유로 살해한다. 결국 살인죄로 미국 군정에 체포된 후 사형을 선고받지만 장택상 등의 비호로 살아남는다.

머리는 비상했다고 하지만 그 비상함을 가리고도 남을 만큼 단순한 성품이었던 그는 좌익을 척살하는 것을 구국의 길로 알았고 우익들은 그가 칼을 휘두르고 죽창을 쏘시고 돌아오면 "동지! 당신이 나라를 구했소"(장택상) 라며 그 단순 무식 과격한 깡패를 칭찬했다. 이는 그 후 정치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할 때 "나라 위해 큰일 해 보지 않겠나?"라고 회유하는 그 방식 그대로다.

불 장 다본 깡패들이 헌신짝처럼 버림받는 것도 당연한 과정인데, 그도 그랬다. 칭찬을 기대하며 이승만에게 불러간 그는 "사람 좀 그만 죽이게." 하는 편지를 듣고 배신감에 치를 떠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손이 칼더러 "피 그만 봐라."고 다그치는 격이었으니 그 속을 짐작할만 하다.

전쟁 이후 그는 "나는 무식하다. 하지만 인생은 영원한 미완성이 아닌가." 는 너무나 솔직한 유세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 당선 3일 만에 감옥에 갇힌다. 이승만 정권을 선거운동 도중 정면으로 비판한 과실죄에 걸렸던 것이다. 정계에 발을 디딘 후 그의 행적 역시 '그 다운' 것이었다. 적어도 국회 단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데리고 있는 측근자들은 모두가 일제 관료출신들이니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의 보스다."고 속 시원하게 퍼부은 사람이 그였고, 정부 관료에게 동물을 퍼부으며 성토했던 행동 역시 '깡패'였던 그가 벌인 일이었다.

한국 현대사의 질풍에 휘말려 버린, 그리 생각은 깊지 못했으나 비열하게 머리를 쓰는 법 또한 알지 못했던 김두한이 1972년 11월 21일 세상을 떠났다.